

보건계열 대학생의 인성과 대인관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융합 연구

전미진^{1*}, 노은경²

¹광주보건대학교, ²동강대학교 보건학부

The Convergence Study effected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health-related college

Mee-Jin Jun^{1*}, Eun-Kyung Noh²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Gwangju Health College

²Department of Health and public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Donggang

요 약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한 보건계열 대학생 220명을 대상으로 인성, 대인관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2017년 8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설문조사가 시행되었으며, 연구결과 대학생의 인성수준은 평균 3.49점(1-5점), 대인관계는 평균 3.40점(1-5점), 대학생활 적응은 평균 3.33점(1-5점)으로 중간수준이었다. 인성, 대인관계,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는 대학생활 적응과 인성($r=.62, p<.001$), 대학생활 적응과 대인관계($r=.80, p<.001$), 전공만족과 대학생활 적응($r=-r=-.32,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중정도수준을 보였다. 보건계열 대학생의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인성의 행동영역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F=102.97$). 보건계열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학 교육과정 내의 인성교육을 향상시킬 수 있는 표본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인성, 대인관계, 대학생활, 적응, 보건계열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factors affected to adjustment of college life character, interpersonal personal relationships of total 220 health-related college in G-city. This study was conducted by a self-report type survey between August 1 and December 30 in 2017, according to the findings, character level is aver. 3.49(1-5 scor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ver. 3.40(1-5)score, adjustment to college life aver. 3.33(1-5)score were showed medium level, The relation between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hip($r=.62, p<.001$), adjustment to college life, character($r=.62, p<.001$), adjustment of college life, interpersonal relations($r=.80, p<.001$), Major satisfaction and adjustment of college life($r=-.32, p<.001$) showed a significantly correlation of medium level. With improved personal relationships and higher behavior factor of level of character college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these factors is 65%($F=102.97$). The results reveals to develop progra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haracter of college students in oder to improve adjustment process to college life.

Key Words :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 College life, Adjustment, Health-related

1. 서론

최근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시대, 자살자의 증가, 학교폭력, 청소년들의 범죄 및 운

리의식 부재 등으로 발생하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기야 정부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2015)까지 제정하여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인성교육진흥법(2015)에서 말하는 '학교'란 대학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Corresponding Author : Mee-Jin Jun(jmejin@hanmail.net)

Received February 20, 2018

Accepted April 20, 2018

Revised March 30, 2018

Published April 28, 2018

비록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제양성의 요람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대학교육과정에서도 인성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도 여전히 학업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자격증, 스펙과 학점관리 등에 집중하면서 초, 중, 고등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 본연의 목적인 인성발달에 필요한 소양과 가치, 공동체 의식과 같은 중요한 관심은 대학교육에서도 등한시 되고 있다[1].

인성이란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특성 [2] 의미하며, 인간성, 인격, 성품, 기질, 됨됨이, 인간의 본성 등의 용어와 유의어로 사용되고 있다[3].

특히, 대학생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하며, 타인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고,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진로를 결정하는 등의 중요한 과업들을 이행하여야 한다[4]. 이러한 사회의 환경적인 변화는 인성적 자질과 함께 원만한 대인관계를 요구한다[5].

또한 성인기의 초기단계에 있는 대학생에 있어서 대인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중, 고등학교에서 같은 학교나 같은 반의 소속의식에 근거했던 교우관계에서 성격, 가치, 이념, 취미, 관심사, 졸업 후 진로 등 다양한 교우관계로 변화하고, 대상이 증가해 와해도 빈번히 나타난다[6]. 더 나아가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은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7] 곧 사회인으로서 활동하게 될 대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특히 보건계열 학과의 학생들은 국가고시를 위한 많은 학습량과, 학기마다 행해지는 임상실습과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성격의 환자나 보호자들과의 대인관계 형성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보건계열 대학생이 졸업 후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대인관계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 내의 교육과정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중, 고등학교 시기에 대학입시를 목표로 하는 획일적이고 수동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가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노출되면서 갑작스런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쉽지 않다[8]. 따라서 혼란과 격동의 시기에 대학생들이 보다 잘 적응하고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지원되어야 한다.

보건계열 대학생의 인성, 대인관계, 대학생활에 대한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나 미흡한 실정이다. 선

행연구에서는 주로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성수준 및 인성 프로그램 연구[9],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많이 행해졌으나[10],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졸업 후에도 사회인으로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대인관계를 학과 적응 및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11].

이에 본 연구는 사회의 초년생인 보건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 대인관계, 대학생활의 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인성과 대학생활 적응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방안의 마련 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G대학에 재학중인 보건계열인 보건행정학과 안경광학과 3학년 학생들을 편의추출하였다. 대상자 수는 양측 검정 유의수준 .05, 다중회귀분석에서 중간효과 크기인 .15, 검정력 95%로 G*power 3.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소 표본 수는 220명으로 나타났다[12] 총 250부를 배부하였으나, 불충분한 응답을 제외한 나머지 220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1.1 인성

인성은 Lee[13]등이 개발한 대학생용 바롬인성척도로 측정하였다. 도구는 총 60개의 문항으로 3개의 하위 영역인 인지, 정의, 행동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영역은 23개 문항(도덕적 인식 4문항, 도덕적 가치를 앎 7문항, 도덕적 추론 3문항, 반성적 의사결정 3문항, 자기이해 3문항, 주도적 삶에 대한 인식 3문항), 정의영역 25문항(양심 5문항, 자기존중 4문항, 감정이입 5문항, 선에 대한 사랑 4문항, 자아통제 2문항, 공동체 의식 5문항), 행동영역 12문항(의지 및 능력 7문항, 습관 5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수준이 높음을 뜻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 .96, 본 연구의 Cronbach's α .87이었다.

2.1.2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Schlein과 Guerny[14]가 개발한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Moon[15]이 수정, 보완한 도구이다. 이 도구는 총 23개 문항으로 7개의 하위영역으로 만족감 4 문항, 의사소통 4문항, 신뢰감 3문항, 친근감 3문항, 민감성 2문항, 개방성 5문항, 이해성 2문항을 구성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 .86, 또한 본 연구의 Cronbach's α .92이었다.

2.1.3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활 적응에 사용된 도구는 Jeong[16]이 개발한 도구로 총 19개 문항으로 5개의 범주인 대인관계 4문항, 학업활동 4문항, 진로준비 4문항, 개인 심리 4문항, 사회 체형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의미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 .86,본 연구의 Cronbach's α .91이었다.

2.2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

자료수집방법은 2017년 8월부터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직접 연구목적, 수집된 자료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연구 참여자로서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한 후 스스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를 대

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연구를 위해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였으며 작성한 설문지는 개별봉투에 담아서 봉하여 연구자가 수거, 보관하였다. 또한 연구가 종료한 1년 후에 설문지는 폐기할 것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으로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 대인관계,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는 독립검정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와 Dunnet T₃을 실시하였다.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자가 145명(65.9%)으로 대부분이었다. 학과를 선택한 동기는 취업의 용이성 73명(33.2%), 점수에 맞춰서가 49명(22.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20)

| Variable | Categories | N(%) |
|-------------------------|---|-----------|
| Gender | Male | 75(34.1) |
| | Female | 145(65.9) |
| Religion | Yes | 38(26.4) |
| | No | 162(73.6) |
| Club | Yes | 14(6.4) |
| | No | 206(93.6) |
| Motivation of admission | Employment guarantee | 73(33.2) |
| | Score | 49(22.3) |
| | Recommendation of family and surroundings | 25(11.4) |
| | Aptitude | 37(16.8) |
| | Others | 36(16.4) |
| Major satisfaction | Satisfied | 56(25.5) |
| | Moderate | 147(66.8) |
| | Dissatisfied | 17 (7.7) |
| Residence | With parents | 142(64.5) |
| | Without parents | 78(35.5) |
| Counselor | None | 18(8.2) |
| | One | 28(12.7) |
| | More than two | 174(79.1) |
| Score | Under 3.0 | 56(25.5) |
| | Over 3.0 | 164(74.5) |
| Level of health | Good | 83(37.7) |
| | Not bad | 125(56.8) |
| | Bad | 12(5.5) |

순이었다. 전공 만족도는 보통이 147명(66.8%), '만족한다'가 56명(25.5%)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3.2 보건계열 대학생의 인성, 대인관계, 대학생활 과의 적응

대학생의 인성수준을 대학생용 바롬척도로 측정 한 결과, 전체 평균은 3.49점(1-5점)으로 중간점수이상의 인성수준을 나타내었다. 3개 하위 영역 중에서 '인지영역'의 평균은 3.6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의 영역'은 3.50점, '행동영역' 3.36점 순이었다.

대인관계 전체평균은 3.40점(1-5점)으로 중간점수 이상의 대인관계를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대학생활 적응의 전체 평균은 3.33점(1-5점)으로 중간정도 수준의 점수였다. '개인심리' 3.48점, '학업활동'이 3.47점, '대인관계'가 3.30점 순이었다(Table 2).

3.3 보건계열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 대인관계 및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종교($p=.026$), 학과 선택동기($p=.019$), 전공만족도($p=.001$), 상담자수($p=.014$)이었으며, 사후검정결과 '취업이 용이'가 '추천'보다 인성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에서는 '만족'과 '보통'이 '불만족'보다 인성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상담자수에서는 '1명'이 '2명 이상'보다 인성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학과 선택동기($p=.017$), 전공만족도($p=.006$), 상담자수($p=.008$), 학점($p=.030$)이었으며, 사후검정결과 '취업용이'가 '추천'보다 대인관계가 높았으며, 전공만족도에서는 '만족'이 '보통'보다 높았고, 상담자수에서는 '0'명보다 '2명 이상'이 더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학과 선택동기

Table 2.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of students (N=220)

| Variables | | M±SD | |
|------------------------------|----------------------------|----------------------------------|-----------|
| Character | Knowing factor | Moral awareness | 3.76±0.68 |
| | | Knowing moral value | 3.49±0.68 |
| | | Moral reasoning | 3.68±0.76 |
| | | Reflective decision making | 3.54±0.69 |
| | | Self-understanding | 3.54±0.69 |
| | | Awareness of self-initiated life | 3.34±0.71 |
| | Sub-total | 3.60±0.62 | |
| | Feeling factor | Conscience | 3.61±0.68 |
| | | Self-respect | 3.61±0.68 |
| | | Empathy | 3.68±0.67 |
| | | Loving the good | 3.68±0.67 |
| | | Self-control | 3.68±0.67 |
| | | Community spirit | 3.68±0.67 |
| | Sub-total | 3.50±0.65 | |
| Behaving factor | Will and competence | 3.68±0.67 | |
| | Habit | 3.68±0.67 | |
| Sub-total | 3.36±0.73 | | |
| Total | | 3.49±0.67 | |
| Interpersonal relations | Satisfaction | 3.50±0.65 | |
| | Communication | 3.57±0.66 | |
| | Trust | 3.13±0.80 | |
| | Friendliness | 3.52±0.69 | |
| | Sensibility | 3.25±0.72 | |
| | Openness | 3.43±0.63 | |
| | Understanding | 3.42±0.70 | |
| Total | 3.40±0.57 | | |
|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 Academic activity | 3.47±0.74 | |
| | Career ready | 3.23±0.82 | |
| | Individual psychology | 3.48±0.74 | |
| | Interpersonal relationship | 3.30±0.74 | |
| | Social experience | 3.17±0.84 | |
| Total | 3.33±0.67 | | |

($p=.016$), 전공만족도($p=.001$), 학점($p=.023$)이었으며, 사후검정결과 ‘취업용이’가 ‘기타’ 보다 대학생활 적응이 높았으며, 전공만족도에서는 ‘만족’이 ‘보통’과 ‘불만족’보다 대학생활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Table 3).

3.4 보건계열 대학생의 인성, 대인관계, 개인건강수준,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 적응과의 상관관계

보건계열 대학생의 인성, 대인관계, 대학생활 적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와 대학생활 적응($r=.80, p<.001$), 인성과 대인관계($r=.71, p<.001$), 대학생활 적응과 인성($r=.62, p<.001$), 개인건강수준과 대학생활 적응($r=-.13, p<.01$), 전공만족도와 대인관계($r=-.32, p<.001$,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 적응($r=-.31, p<.001$)이 유의한 상관관계로 나타났다(Table 4).

3.5 보건계열 대학생의 인성, 대인관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대인관계, 인성의 행동영역, 전공만족도를 독립변수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포함된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TL)가 0.1이상,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0이하로 나타나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대상자의 대인관계($\beta=.64, p<.001$), 인성의 행동영역($\beta=.17, p<.001$)이 보건계열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02.97, p<.001$), 모형의 설명력은 65%이었다. Durbin Watson는 -1.439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3.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of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general. (N=220)

| variables | Categories | Character | | | | Interpersonal relations | | | |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 | | |
|-------------------------|--|------------|--------|-------|----------|-------------------------|--------|-------|----------|------------------------------|--------|-------|----------|
| | | M±SD | t or F | p | Post-hoc | M±SD | t or F | p | Post-hoc | M±SD | t or F | p | Post-hoc |
| Gender | Male | 3.56±0.64 | 1.02 | 0.311 | | 3.73±0.72 | 0.81 | 0.433 | | 2.70±0.69 | 2.05 | 0.49 | |
| | Female | 3.46±0.66 | | | | 3.65±0.64 | | | | 2.51±0.62 | | | |
| Religion | Yes | 3.65±0.60 | 2.12 | 0.026 | | 3.79±0.61 | 1.46 | 0.144 | | 2.60±0.61 | 0.29 | 0.762 | |
| | No | 3.43±0.68 | | | | 3.64±0.69 | | | | 2.57±0.66 | | | |
| Club | Yes | 3.57±0.64 | 0.43 | 0.657 | | 3.57±0.75 | -0.63 | 0.578 | | 2.92±0.73 | 2.06 | 0.085 | |
| | No | 3.49±0.67 | | | | 3.68±0.67 | | | | 2.55±0.64 | | | |
| Motivation of admission | Employment guarantee ^a | 3.69±0.70 | 3.01 | 0.019 | a>b | 3.87±0.66 | 3.081 | 0.017 | a>b | 2.73±0.74 | 3.13 | 0.016 | a>e |
| | Score ^b | 3.30±0.71 | | | | 3.48±0.58 | | | | 2.44±0.57 | | | |
| | Recommendation of family and surroundings ^c | 3.44±0.65 | | | | 3.60±0.70 | | | | 2.64±0.63 | | | |
| | Aptitude ^d | 3.48±0.60 | | | | 3.72±0.73 | | | | 2.64±0.58 | | | |
| Major satisfaction | Others ^e | 3.38±0.54 | | | | 3.55±0.65 | | | | 2.33±0.53 | | | |
| | Satisfied ^f | 3.85±0.644 | 12.43 | 0.001 | a,b>c | 3.92±0.70 | 5.321 | 0.006 | a>b | 2.94±0.61 | 13.70 | 0.001 | a>b,c |
| | Moderate ^b | 3.38±0.65 | | | | 3.60±0.62 | | | | 2.47±0.62 | | | |
| Living | Dissatisfied ^c | 3.23±0.43 | | | | 3.52±0.79 | | | | 2.29±0.58 | | | |
| | With parents | 3.49±0.68 | -0.74 | 0.940 | | 3.71±3.61 | 1.08 | 0.291 | | 2.56±0.64 | -0.56 | 0.578 | |
| Counselor | Without parents | 3.50±0.65 | | | | 3.61±0.70 | | | | 2.61±0.66 | | | |
| | None ^a | 3.22±0.54 | 4.36 | 0.014 | b<c | 3.33±0.68 | 4.99 | 0.008 | a<c | 2.27±0.57 | 2.14 | 0.120 | |
| | One ^b | 3.25±0.44 | | | | 3.46±0.50 | | | | 2.60±0.56 | | | |
| Score | More than two ^c | 3.56±0.70 | | | | 3.75±0.68 | | | | 2.60±0.66 | | | |
| | Under 3.0 | 3.34±0.51 | -1.88 | 0.061 | | 3.50±0.63 | -2.12 | 0.030 | | 2.41±0.56 | -2.13 | 0.023 | |
| | Over 3.0 | 3.53±0.70 | | | | 3.73±0.67 | 0.91 | 0.404 | | 2.63±0.66 | 2.63 | 0.074 | |
| Level of health | Good | 3.59±0.74 | 1.33 | 0.264 | | 3.75±0.69 | | | | 2.71±0.69 | | | |
| | Not bad | 3.44±0.61 | | | | 3.64±0.66 | | | | 2.54±0.61 | | | |
| | Bad | 3.41±0.66 | | | | 3.58±0.66 | | | | 2.50±0.67 | | | |

Scheffe, Dunnet T₃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of college students. (N=220)

| | Interpersonal relationship(r/p) | Adjustment to a college life(r/p) | Character(r/p) | Level of health(r/p) | Major satisfaction(r/p) |
|------------------------------|---------------------------------|-----------------------------------|----------------|----------------------|-------------------------|
| Interpersonal relationship | 1 | | | | |
|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 .80* | 1 | | | |
| Character | .71** | .62** | 1 | | |
| Level of health | -.12 | -.13* | -.10 | 1 | |
| Major satisfaction | -.32** | -.31** | -.30** | .13* | 1 |

p<.001, p<.01

Table 5. Factors Affecting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of college students. (N= 220)

| Variables | B | β | t | p | Tolerance | VIF |
|----------------------------|------|---------|-------|------|-----------|------|
| (Constant) | .47 | | 2.008 | .04 | | |
| Interpersonal Relationship | .74 | .64 | 9.82 | .001 | .37 | 2.67 |
| Character-Behaving factor | .15 | .17 | 2.72 | .007 | .39 | 2.53 |
| Major satisfaction | -.07 | -.06 | -1.47 | .142 | .88 | 1.12 |

F-value=102.97, p-value= <.000, R²= 0.65, adj R²= 0.65

4. 고찰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인성, 대인관계가 대학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대학생활 적응 증진을 위하여 사회에 나아가 초년생인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시도 되었다. 또한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전공만족도와 전공선택동기가 영향을 미쳐[16] 건강한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대학생의 인성정도를 대학생용 바롬척도[13]로 측정된 결과 중간이상의 인성수준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인성의 도구인 하위영역은 인지, 정의, 행동영역 순이었고, Kim[17]의 연구에서는 정의, 행동, 인지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Sim[19]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정의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정의영역은 양심, 자기존중감, 감정이입, 선을 사랑, 자아통제, 결양을 의미하는데 이는 대학생으로서 자신에 대한 자기존중과 타인을 향한 배려심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대상자들은 인지적 영역인 도덕적 추론, 가치, 앎, 반성적 의사결정 등 의 이는 이론적인 개념이나 생각은 알고 있으나 행동영역인 수행과 관련되어 행동이나 습관, 실천력 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성교육의 중심교육 사상은 머리로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천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의 교육과정 내에서 인성이 함양 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하여 학점으로 이수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표 1의 일반적 특성에서 학과를 선택한 동기는 '취업의 용이성'이 73명(33.2%)로 가장 많았고,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결과이다[18]. 대인관계는 중간점수 이상의 대인관계 수준을 나타내었고, Sim과 Bang[19]의 연구와 Lee와 Nam[20]의 연구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도 중간점수 이상 이었다.

No와 Kang[21] 연구에서도 이시기에 개개인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형성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Ryu[22]의 연구에서도 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나 상담소에 대학생활 부적응으로 상담하는 학생 중에 교우관계, 이성 관계, 가족 관계 등 대인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하여 대인관계의 원만한 형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 7개 하위영역이 민감성, 이해성, 신뢰성, 친근감 순이었고, Shim[23]과 Ahn의 연구에서는 이해성, 친근감, 민감성순이었다. 이는 모두 현대사회 속에서 갈등과 대립되는 관계를 통해 성립되는 대인관계에서 서로 배려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이해성이 영

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은 3.33점으로 보통 수준의 점수였다. '개인심리' 3.48점(1-5점), '학업활동'이 3.47점(1-5점), '대인관계'가 3.30점 순이었으며, Park과 Kim[24]의 연구에서는 평균 3.27점이었으며, 하위요인별 점수 순위는 대학환경 적응, 개인정서 적응, 사회적 적응이며, 학업적 적응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Lee와 Kim[25]의 연구결과에서는 대학생들 스트레스 요인 가운데 학업 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의해 개인적 동기인 치열한 취업경쟁으로 비교적 취업이 용이하다는 학과에 본인 전공을 선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영역 중 대인관계 수준이 평균 보다 낮게 나타나, 연구대상자가 졸업반인 3학년이고 취업을 앞두고 있으며, 학업에 대한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감안할 때, 대학생활 중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큰 요소라고 이해되는 바이다. 하지만 보건계열 학생으로서 졸업 전 타인과의 관계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생활 내에서 체험할 수 있는 대인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활동을 체험해 볼 수 있게 해야 하며, 학생 자신의 적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진로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보건계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은 종교, 학과 선택동기, 전공만족도, 상담자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5$), 종교의 유무에서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성수준의 점수가 높았다. 학과 선택동기에서 '취업이 용이'가 추천 보다 인성수준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전공 만족도에서는 '만족'과 '보통'이 '불만족'보다 인성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상담자수에서도 '2명 이상'이 '1명'보다 인성수준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Lee[26]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은 종교를 가진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인지적 인성수준이 높았으며($p=.038$) 종교로 인해 인격적 성장을 지향한다는 의미로 해석한 결과로 보인다.

Park과 Kim[24]의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3,4학년인 경우 개인적 동기 보다 취업이 우선이 되는 사회적 동기가 높았으며, Song[27]의 연구에서는 전공 선택동기에 있어 개인적 동기인 내재적 동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외재적 동기인 사회적 동기는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im[19]의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인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Choi[28]의 연구에서는 창의적 인성은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만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상담자수가 '1명' 보다 '2명 이상'에서 인성수준이 높았으며, 이는 의사소통과인성과의 상관관계 및 메타분석결과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29]. 본 연구의 보건계열 학생들의 인성과 학과 선택 동기에서 '취업의 용이'가 '추천' 보다 인성수준이 높았으며, 이는 Lee와 Kang[26]의 연구와 같이 인성수준이 낮은 학생은 자신을 통제하고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 부족하며, 무엇보다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고 실천하는 부분이 많이 취약하다는 결과와 비슷하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학과 선택동기, 전공 만족도, 상담자수, 학점으로 나타났다. Ahn[30]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와 학점은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학과를 선택하는 목적이 담긴 진로직업, 진로준비행동과 같은 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Kwan[31]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요인이 자신을 둘러싼 가족 및 친구들에 의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지속의지가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이는 함께 주변의 지인이나 친구들이 바로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Kwak와 Hwang[32]의 연구에서는 전공에서는 간호대학생의 학과 만족도는 대인관계의 조화, 자기효능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학과 선택동기, 전공만족도, 학점이었다. Shim[19]의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전공만족도와 관련이 있었고, Ahn[33]의 연구에서도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대학생활 적응을 잘한바 있다. Park[24]의 연구에서는 전공에 대한 기대와 만족도는 대학생 개개인의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준비에 큰 영향을 주었고, 전공불만족[34]은 결국 학교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게 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처럼 대학생활 적응과 학과 선택동기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연구[35]에서처럼 전공 선택 시 학과에 대한 사전지식을 가진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Moon과 Lee[36]의 연구에서는 평균 취득학점이 3.0-3.5점 사

이보다 3.5-4.0점을 받은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보건계열 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인성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인성과 대인관계에 대한 연구 중 Lee[37]는 Gerturd ujhly의 이론을 인용하여 인성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인성을 외곽층, 내면층으로 분리하였다. 또한 일부 여대생들이 가장 크게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성격문제라고 한 연구도 있어 인간을 다루는데 특유의 인성이 크게 작용한다고 밝힌 연구가 있었다[38]. 이에 보건계열 대학생의 대인관계를 형성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과 봉사활동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대인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Park[39]의 연구에서도 효과적인 인성교육의 방안으로 교양과목을 통한 인성교육을 키워 나가고, 대학의 봉사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의 장을 마련토록 제시한 바 있다.

보건계열 대학생의 대인관계와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Kwan[40]연구에서도 대학시기에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상황이 달라지거나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상담 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학생이 많고, Kim[41] 연구에서도 대학생활 적응은 대학의 환경 속에 대인관계 형성과 같은 새로운 경험에 대처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대인관계 수준이 대학생활 적응과 매우 관련이 있다고 한 바 있다.

보건계열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인성영역 중 행동영역이 대인관계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65%였다. 대인관계가 대학생활 적응에 높은 영향력이 있었다.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입학시부터 적응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대규모의 교육보다 소규모의 상담교육이나 멘투멘 형식의 1:1 상담교육을 통해서 대학 내의 환경과 더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 내 학생 상담소의 역할을 더 강화하거나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고민이나 문제를 상담하여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보건계열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인성과 대인관계를 분석하였지만,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인성과 관련하여

대학생활 적응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들이 매우 부족하기에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나온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해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향후 다른 계열학과의 인성과 대인관계 대학생활 적응과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이고 한층 더 향상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보건계열 대학생들은 졸업 후 임상현장에 나가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대인관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대학생활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인으로서의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 시도되었다. 인성수준은 3.49점(1-5점), 대인관계 전체평균은 3.68점(1-5점) 대학생활 적응은 전체평균 2.58점(1-5점)으로 중간정도 수준의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인성, 대인관계,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는 대학생활 적응과 인성($r=.62, p<.001$), 대학생활 적응과 대인관계($r=.80, p<.001$), 전공만족과 대학생활 적응($r=-r=-.32,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중정도수준을 보였다.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인성의 행동영역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F=102.97$).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학 교육과정 내의 인성교육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인관계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S. W. Park. (2015). *Humanities, liberal arts education, redefining the relationship for the poetics of character education congress forum Academic seminar.*
- [2]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web site.*(Available at [http://stdweb 2. korean.go.kr/search/List_dic.jsp](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 [3]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Analysis on the Condition of school's character Education-focusing on Middle Schoo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Seoul.* 2009.
- [4] H. S. Lee, (2014).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task and adjustment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Doctor's thesis of Yonsei, thesis.
- [5] H. S. Jeong, K. L. Lee, (2012).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Journal of*

-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4(5). 2633-2647.
- [6] Y. J. Kim, (2012). *The relationships comparison between south korean and chinese college students' family factors and international relationship ability*. doctor's thesis university of JeonBuk, Jeolabukdo
- [7] B. Y. Kwon, (2000). *A study on relations of first year college students typ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their perceived parent child communication style and child rearing style*.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Yonsei, Seoul.
- [8] S. J. Lee, J. H. Yu, (2008).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and career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22(3), 589-607.
- [9] S. H. Lee, C. H. Yoon, (2015). *Effect of a character education program focused on experiential learning activities for junior high school students*.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63(4). 539-570.
- [10] Y. N. Jin, S. H. Kim, (2012). *A plan on the character education in practical arts*. *Korean Technology education association*, 12(2), 250-274.
- [11] H. S. Song, E. S. Na, Y. H. Jeon and K. I. Jung. (2016). *Factors influencing college lif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 of the korean of living environmental system*, 23(1), 72-81.
- [12] F. Faul, E. Erdfelder, A. Buchner,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 and biomedical science*, *Behavior Research Methods*, 39, 175-191.
- [13] Y. S. Lee, H. Y. Kang, S. J. Kim, (2013). *A validation study of the character index instrument for college students*. *J of Ethics Education Studies*, 31, 261-282.
- [14] A. Shliein and B.G. Guerney. (1971) *Relationship enhancement*. Sanfrancisco, CA: Josey-Bass.
- [15] S. M. Moon, (1980). *A study on the effect of human relations training of university students*. *J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19(2), 195-203.
- [16] E. I. Jeong, Y. H. Park.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adjustment scale*. *J of educational methology studies*. 21(2). 69-92.
- [17] S. J. Kim, (2016). *A study of a character education plan according to character level and requirements for college student*.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23(2), 1-19.
- [18] B. G. Ryu, D. B. Park, (2012). *Sustainable economic growth*, *Weekly economic review*, 1(119). 1-14.
- [19] S. S. Sim, M. R. Bang,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17(12), 634-642.
- [20] M. R. Lee, M. H. Nam, (2014).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the influencing factors in nursing students*, *J of digital convergence*, 12(6), 509-517.
- [21] A. Y. No, Y. S. Kang (2006). Seoul: Hakjisa.
- [22] J. H. Ryu. (2002). *Interpersonal and leadership of college student*. Student life institute. Gwangnam university.
- [23] H. S. Shim, S. Y. Ahn. (2015). *The influence of ego state and interpersonal skill among nursing students*. *J of digital convergence*, 13(12). 269-275.
- [24] A. S. Park, H. K. Kim. (2016). *The effect of Motivation for Major choice and satisfaction in major on the Adaptation of university life among university students*. *J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2). 511-519.
- [25] H. J. Lee, H. K. Kim. (2015). *The effect of intoxication in SNS and stress of university life on the adapta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6). 3994-3953.
- [26] M. R. Lee, Y. K. Kwag. (2017).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 *Asia-pacific J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7), 491-499.
- [27] Y. J. Song. (2013).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Doctor's thesis university of Dong-A, Busan.
- [28] S. B. Choi, (2012). *The relationship among self-leadership creative personality and study satisfac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review*, 31(4). 611-638.
- [29] H. J. Lim, (2015). *Verify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reativity and autonomous Educational climate at the college level*. Doctor's thesis university of Ewha womans, Seoul.
- [30] H. J. Ahn. (2013). *The Influence of development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 type of university stude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Gwangwon, Gwangwon.
- [31] S. M. Kwan. (2000). *Research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ontinuity of adolescent' volunteer action*. Docto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woman, Seoul.
- [32] H. W Kwak, S. W. Hwang. (2017). *A comparative stud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f students majoring in nursing*.

- J of digital Convergence*, 15(2). 239-249.
- [33] J. Y. Ahn, H. K. Lim. (2005). *College adjustment of female students*. *Korea J of human ecology*, 14(1). 233-239.
- [34] M. R. Lee, (2014). *The relationships among major satisfaction, Ego-Resiliency and job preparing stress*.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Mokpo, Jeonnam.
- [35] S. M. Lee, J. H. Choi, (2015). *A study on career identity satisfaction in major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for students of development of food nutrition cooperation society*, 16(10). 6698-6707.
- [36] M. J. Moon, S. H. Lee.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burn out and adjustment to nursing students' college life*. *Asia-pacific J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10). 1-11.
- [37] S. Y. Lee. (1998). *The nursing theory and communicative action of reality*. *Korean Nurse*, 5th.
- [38] G. S. Kang. (1976). *A study predicting of Nursing students performance*. *Yeonse university collected paper*.
- [39] S. J. Park, K. H. Ko. (2014). *TA study on the personality educational method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 of parents education*, 11(1). 35-50.
- [40] S. M. Kwan. (1994). *The quality of life as perceived by the Youth*. *Social science and policy research*. 16(2). 42-57.
- [41] H. Y. Kim.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ystem patterns and career decision-making and adjustment to college*.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ookMyoung woman, Seoul.

전 미 진(Mee-Jin Jun)

[정회원]



- 2011년 8월 :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졸업(보건학박사)
- 2016년 9월~현재 : 덴바이오 연구원
- 관심분야 : 구강보건, 예방치학
- E-Mail : jmejin@hanmail.net

노 은 경(Eun-Kyung Roh)

[정회원]



- 2010년 2월 : 조선대학교 보건일반대학원 보건학졸업 (보건학박사)
- 2012년 3월~현재 : 동강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
- 관심분야 : 보건학, 의료 서비스
- E-Mail : rek7565@empas.com